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감상과 적용

성경: 레 4:1-35, 6:25-27, 요 1:29, 3:14, 롬 8:3, 고후 5:21, 요일 1:5-9

- I. '죄'는 우리의 본성에 내주하는 죄를 가리키고(롬 8:3, 고후 5:21, 히 9:26), '죄들'은 내주하는 죄의 열매인 죄악이 가득한 행위들을 가리킨다(사 53:5상, 고전 15:3, 벧전 2:24, 히 9:28).
- A. 마귀 사탄이 죄의 근원이다 — 겔 28:16-17, 요 8:44, 비교 고후 12:7, 벧전 5:8, 5, 빌 2:8, 요 14:30.
1. 사람의 타락을 통해 사탄의 인격이 사람의 혼과 하나가 되었다. 또한 사람이 사탄을 자신의 몸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의 육체의 지체들 안에서 악으로서 작용하는 죄가 되었다 — 창 3:1, 4-5, 롬 5:12, 19상, 7:18상, 14하, 17, 20-21.
 2. 마귀가 죄인들의 아버지, 곧 거짓말쟁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 요 8:44, 요일 3:10.
 3. 우리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아담 안에서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뱀의 독을 가지고 태어나 뱀들, 곧 독사의 자손들이 되었다 — 시 51:5, 요 9:34, 마 23:33, 3:7.
- B. 죄는 악한 자 사탄의 악한 본성이다. 사탄은 아담의 타락을 통해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한 후에, 이제는 타락한 사람 안에서 하나의 법으로서 거하고 활동하며 작용하는, 극히 죄악된 본성이 되었다 — 롬 5:12, 21, 6:14, 7:11, 17, 20.
- C. 죄는 불법이다 — 요일 3:4, 살후 2:3, 7-8.
- II. 실수로 죄를 짓는 것(레 4:2)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죄, 곧 내주하는 죄를 나타낸다. 이 죄는 사탄에게서 아담을 통하여 인류에게로 들어왔으며(롬 5:12),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짓게 한다(7:19-20).
- A. 로마서 7장에서 인격화된 이 죄(참조 롬 7:8 각주 1)는, 우리의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하는 사탄의 악한 본성, 심지어 사탄 자신이다(7:17-18상, 20, 23). 우리의 육체가 죄와 하나이기 때문에(8:3) 우리가 육체로 하는 것은 선하든 악하든 모두가 죄이다.
- B. 더욱이 육체는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창 6:3, 롬 3:20), 타락한 모든 사람은 죄 자체이다(고후 5:21과 각주 2).

레위기

메시지 6 (계속)

III. 속죄제물(레 4:1-35)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죄가 유죄 판결받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을 상징한다 — 레 4:1-3, 13-14, 22-23, 27-28, 롬 8:3.

A.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으신 말씀은 죄의 육체의 모양, 곧 타락한 사람의 모양에 있어서 육체가 되셨다 — 요 1:1, 14, 롬 8:3.

1. 그리스도는 비록 모양에 있어서만 타락한 사람이셨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그 모양을 실재로 간주하셨다 — 고후 5:21.

2. 죄와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과 세상의 왕은 모두 육체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죽으셨을 때, 죄가 유죄 판결받았고(롬 8:3),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6:6), 사탄이 멸망당했고(히 2:14), 세상이 심판받았으며, 세상의 왕이 쫓겨났다(요 12:31).

3. 따라서 육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처리되었다. 이것이 속죄제물의 효능이다 — 요 1:29.

B.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의 악한 본성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형태로 죽으신 것을 통해 심판받았으며, 이것은 믿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 요 3:14-16, 1:14, 롬 8:3.

C.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 고후 5:21.

IV.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요일 1:8, 출 29:35-36)과 속건제물(요일 1:9)로 매일 취해야 한다.

A.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의 연결을 상징한다 — 레 4:4, 15, 24, 29, 33.

B.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취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죄가 유죄 판결받고(롬 8:3),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며(6:6), 죄 자체인 사탄이 멸망당하고(히 2:14), 세상이 심판받으며, 세상의 왕이 쫓겨나는 것(요 12:31)을 의미한다.

1. ‘이 세상의 왕’에서 ‘왕’이라는 단어는 권위 혹은 권력 그리고 권력을 얻으려는 투쟁을 함축한다 — 눅 4:5-8, 비교 마 20:20-21, 24, 요삼 9.

2. 권력을 얻으려는 투쟁은 육체, 죄, 옛사람, 사탄, 세상, 세상의 왕에게서 나온 산물이자 결과이다 — 갈 5:16-17, 24-26.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6 (계속)

3. 죄는 권력 투쟁과 관련되며, 죄의 법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연스러운 능력과 힘과 에너지이다 — 롬 7:23, 8:2.
- C.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요일 1:5, 골 1:12)과 참되고 친밀하며 살아 있고 사랑이 가득한 교통을 가질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취할 것이다(요일 1:5-9).
1.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누릴수록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더욱 알게 될 것이다 — 사 6:5, 눅 5:8, 롬 7:18.
 2. 우리에게 죄악이 가득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취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고 정복되게 하며, 또한 우리를 지켜 준다. 왜냐하면 이러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 빌 3:3, 비교 출 4:6.
 3. 우리는 다윗의 체험으로부터 자신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 시 51편.
 4.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도록 허락하시는 고통스러운 방식을 사용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추하고 혐오스러운지를 보고, 자아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비교 레 6:28, 신 8:2, 눅 22:31-32, 롬 8:28.
- D. 우리가 우리의 변제물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분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 레 6:25-27.
1. 하나님께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목적으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야 한다 — 창 1:26, 사 43:7.
 2.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다.
 - a.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죄이다 — 민 18:1, 왕하 5:20-27, 마 7:22-23.
 - b.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한다면, 그것은 죄이다 — 고후 4:5.
 - c. 우리가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이다 — 마 6:1-6.

레위기

메시지 6 (계속)

- d.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곧 우리의 명성과 지위와 유익과 자랑거리를 위해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이다 — 눅 14:12-14.
- e.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장래를 위해 우리의 자녀를 키운다면, 그것은 죄이다 — 비교 고전 7:14.

V. 속죄제물의 피에는 네 가지 효능이 있다.

- A. 피 얼마는 회막으로 가져가 여호와 앞, 곧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렸는데 (레 4:5-6, 16-17),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들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가져간 것을 의미한다(히 9:12).
- B. 피 얼마는 분향단의 뿔에 발랐는데(레 4:7상, 18상),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이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히 10:19).
- C. 피 얼마는 번제단의 뿔에 발랐는데(레 4:25상, 30상, 34상),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를 구속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엡 1:7, 뱀전 1:18-19).
- D.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는데(레 4:7하, 18하, 25하, 30하, 34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심으로 우리가 양심 안에서 평안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쏟아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히 9:14).

VI.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신 결과로,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롬 8:3-4.